

물가3%대 재진입...과일 41% 폭등 32년 5개월 만에 최대

과실 41.2% ↑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사과 71%·귤 78%·파 50%·딸기 23% ↑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상승폭이 확대된 건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과일을 중심으로 농산물 물가가 크게 오르고 석유류 가격 하락폭이 축소하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77(2020=100)로 1년 전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12월(3.2%) 이후 두 달 만에 3%대를 기록한 셈이다.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해 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8월(3.4%), 9월(3.7%), 10월(3.8%), 11월(3.3%),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다가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으나 지난달 다시 3%대로 확대

됐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3.9%, 2.5% 상승했다. 상품 중 농축수산물 가격은 11.4% 올랐다. 이 중 채소류(12.2%)를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20.9% 상승했다. 이는 2011년 1월(24.0%) 이후 1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사과(71.0%), 귤(78.1%), 토마토(56.3%), 파(50.1%), 딸기(23.3%)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농산물이 전체 물가 상승에 기여한 정도는 0.80%포인트(p)로 나타났다. 축산물과 수산물 물가는 각각 1.1%, 1.8%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2.1% 올랐다. 라면(-4.8%), 햄 및 베이컨(-3.6%) 등 가공식품 물가는 2021년 10월(3.4%) 이후 31개월 만에 상승폭이 가장 둔화한 1.9%를 기록했다. 휘발유(2.0%), 경유(-5.7%), 등유(-6.9%) 등 석유류는 1.5% 하락했다. 다만 하락폭은 전월(-5.0%)보

다 축소됐다. 물가 기여도도 -0.21%p에서 -0.06%p로 줄면서 전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유가가 오르는 추세인데 이런 부분이 휘발유에 제일 먼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전기료(4.3%), 도시가스(5.6%), 지역 난방비(12.1%) 상승도료(2.7%) 등 전기·가스·수도 물가는 4.9%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 중 공공서비스 물가는 2.0% 올랐다. 개인 서비스 물가는 3.4% 상승했다. 이 중 외식 물가는 3.8% 올랐다. 외식은 2021년 10월(3.4%) 이후 가장 작았다. 외식 제외 물가 상승률은 3.1%였다.

집세는 월세가 0.8% 올랐으나 전세가 0.9% 하락하면서 0.1% 내려갔다.

구입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보다 3.7% 상승했다.

생선, 해산물, 채소, 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0.0% 올랐다. 같은 달 기준으로 2011



년(21.6%) 이후 13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다. 전체 기준으로 보면 2020년 9월(20.2%)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이 41.2% 올랐다. 이는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신선채소는 지난해 3월(13.9%) 이후 최대 폭인 12.3% 올랐다.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물가 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근원물가인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보다 2.5% 상승했다.

유나기자



지난달 수입차 신규 등록 전년 대비 24.9% ↓

전월보단 24.1% 늘어...1위 BMW코리아

2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지난해 2월보다 24.9% 줄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2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1만6237대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1월(1만3083대)보다 24.1% 증가한 수치인데, 지난해 2월(2만1622대)보다 24.9% 감소한 것이다.

2월까지 누적 대수는 2만932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7844대)과 비교해 22.5% 감소했다.

2월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6089대를 기록한 BMW코리아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3592대), 볼보자동차코리아(961대), 렉스스코리아(919대) 순이다.

테슬라코리아의 등록 대수는 174대로 집계됐다.

연료별로 등록 대수를 따지면 하이브리드가

8876대를 기록해 전체의 54.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솔린 5183대(31.9%) ▲전기 1174대(7.2%) ▲플러그인하이브리드 545대(3.4%) ▲디젤 459대(2.8%) 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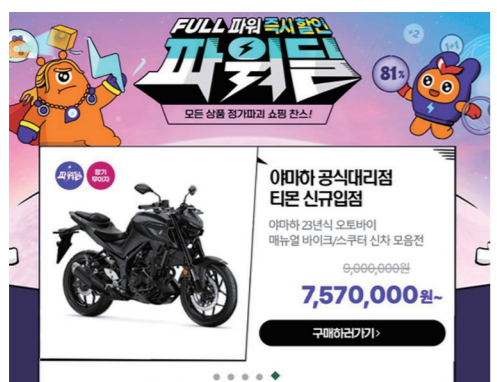
구매 유형별 등록 대수는 개인구매가 1만 572대(65.1%)를 기록했다. 법인구매는 5665대(34.9%)로 조사됐다.

2월 베스트셀링 모델은 BMW코리아 520(1384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E 300 4MATIC(860대), BMW코리아 530 xDrive(639대) 순이다.

정윤영 KAIDA 부회장은 "2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설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일부 브랜드 물량 확보 및 신차효과에 힘입어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티몬, '파워딜'에 '야마하 모터사이클' 입점



티몬이 '파워딜'에 오픈마켓 최초로 '야마하 모터사이클'을 특가에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파워딜은 티몬이 오픈마켓 셀러들의 판매

촉진을 지원하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특가상품을 선보이는 상시 큐레이션 매장이다. 셀러가 1만원의 광고비를 낸 후, 상품에 파워딜을 적용하면 티몬이 최대 50%까지 할인을 분담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티몬은 오는 14일까지 야마하 모터사이클의 인기 상품들을 단독 혜택으로 선보인다. 즉시할인을 기본으로 하나카드 결제 시, 최대 18만원의 중복 할인에 최대 12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한다.

대표적으로 입문자용 바이크로 제격인 야마하 MT-03 모델은 최종 혜택가 757만원, 야마하 MT-09SP 모델은 1437만원이다.

뉴스

“끊지 말고 끝내자” 피우면서 금연하는 보조제 ‘엔드퍼프’ 나왔다

식약처 허가받은 베이핑용 흡연습관개선보조제



HR메디컬은 6일 국내 및 세계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금연보조제로 의약품 허가를 받은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엔드퍼프(End-puff)'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엔드퍼프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았고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해 흡연습관을 개선하는 제품이다.

금연 실패의 중요한 요인인 습관적 행동에 초점을 맞춰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피우면서 금연을 시도할 수 있다.

흡연습관개선이 필요할 때 담배 대용으로 사용하고 용액을 카트리지 전용 용구에 주입

하고(최대 2.4ml) 카트리지를 기기에 장착 후, 담배를 피우듯이 입에 물고 공기를 흡입했다가 천천히 배출한다.

1일 권장 사용량은 약 1.5ml(120~130회 흡입)이다. 용액의 경우 권장용량으로 사용 시 1병당 20일 정도 사용 가능하고 파드는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용액 반 병 또는 1병 소진 시 교체하면 된다.

엔드퍼프는 독성시험과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입증했다.

기존 금연보조제 전문의약품의 경우 구역, 구토, 소화불량, 어지러움, 두통 등의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인 금연껌과 니코틴 패치 등의 니코틴 대체요법의 경우는 니코틴 의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구역, 두통, 수면장애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초, 관련된 금연보조제 등 의약품은 타르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비롯해 불쾌한 사용감 등 여러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엔드퍼프는 전자식 흡연습관개선보조제 국제규격(GLP) 인증기관을 통해 진행된 13주 반복흡입독성시험과 소화시험을 완료한 결과 ▲혈액학적 및 혈액생화학 검사 ▲안과학적 검사 ▲장기중량 측정 ▲병리조직학적 검사 ▲소해 유발 여부 등에서 모두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얻었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안전성 평가를 위해 6주간 진행된 인체적용시험 결과 폐활량 평균값이 증가했고 혈액검사 상 안전성에 문제없음이 밝혀졌다. 또한 6주 차에 금단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엔드퍼프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금연 초기 니코틴 대체요법제 등과의 병행 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효과적인 금연계획 수립이 가능해 금연 실패율을 낮출 수 있다.

이 밖에 풍부한 연무량과 타격감을 갖췄고 엔드퍼프만의 용액 조성법과 조성비를 통해 베이핑의 만족감을 높였다.

조독상 HR메디컬 대표는 "엔드퍼프는 니코틴 의존도를 줄이면서 금연 실패의 중요한 요인인 습관적 행동과 심리적 압박 등의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금연보조제"라며 "엔드퍼프가 기존 흡연 행동을 끊지 않고 흡연을 끝내는 데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국제 금값 상승세 지속...금리인하 기대에 불확실성 겹쳐

지난 4일 사상 처음 2100달러 넘어선 뒤 상승세 지속

올해 하반기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미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겹치면서 5일(현지시간)에도 국제 금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CNBC에 따르면 4월 인도금 선물은 이날 런던 시간 오후 1시15분 기준 0.37% 오른 2134.2달러(약 285만원)를 기록했다.

금값은 지난 4일 온스당 2126.30달러를 기록해 사상 처음 2100달러를 넘어섰다.

최근 금값 상승세는 인플레이션 둔화세에 따라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에서 오는 6월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은 55%에 달한다.

여기에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도 안전자산인 금을 찾는 동기가 되고 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투자은행 ING는 "연준의 정책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금 가격 전망의 핵심으로 남을 것"이라며 "시장이 거시적 동인과 지정학적 사건에 반응하면서 앞으로 몇 달 간 금값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



했다.

씨티그룹은 올해 하반기 금값이 2300달러까지 오를 확률이 25%나 되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 향후 12~16개월 이내에 3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변영일기자